

한국어 동작단위사와 중국어 동량사의 대조 연구*

— 명칭 및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

XU JIASI

(경희대학교 박사수료)

김정남**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한국어는 수 분류사 언어에 속하고 기존 연구에 따르면 '명', '개' 그리고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번', '회' 등이 모두 분류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위 수 분류사의 주요 기능은 부류화가 아닌 수량 구성에서의 단위 제공의 기능임을 고려하여 단위사(unitizer)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사의 경우에는 '동작단위사'라 명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量詞(양사)라는 단어 부류가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되며 양사의 하위부류로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動量詞(동량사)가 인정된다.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는 공히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횟수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사건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의 동량사는 이 밖에도 동작의 범위, 활동의 폭, 동작 시간의 길이, 동작 목적성의 강약 등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에는 '가지', '물'과 같이 특정 사건을 지시하는 동작단위사가 존재하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특질화(特質化) 기능을 가진 동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어학계에서는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는 드물고 주로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중국어학계에서는 동량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분류 유

* 이 논문은 2024년 7월 13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46회 전국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을 모태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 XU JIASI가 제1저자이고, 김정남이 교신저자임.

형도 다양할 뿐 아니라 차용(借用)의 개념도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차용’의 개념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동작단위사는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횟수를 계량하는 단위로만 쓰일 뿐이다. 동작의 시간, 동작의 범위, 동작의 수단, 동작의 크기 등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도량형 단위사를 통해 나타내야 하고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나 도량형 단위사는 동작단위사로 볼 수 없다.

주제어 : 단위사, 양사, 동작단위사, 동량사, 의미적 특성, 대조 연구

1. 서론

수 범주는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수량 표현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언어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 형식도 다르다.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Allan(1977)은 분류사가 있는 언어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네 가지는 수 분류사 언어(numeral classifier language), 일치적 분류사 언어(concordial classifier language), 술어 분류사 언어(predicate classifier language), 처소-내적 분류사 언어(intra-locative classifier language)이다. Craig(1994)에서는 분류사 자체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형태-통사적인 지위에 따라 명사류(noun class),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 명사 분류사(noun classifier), 속격적 분류사(genitive classifier), 동사적 분류사(verbal classifier)로 나눈 것이 그것이다.¹⁾

한국어와 중국어는 수 분류사 언어에 속하여 수 분류사(classifier)가 존재하고 수사 및 수관형사와 함께 수량 표현을 형성하는 언어이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와 ‘一個蘋果’에서 ‘개’와 ‘個’는 이른바 수 분류사이다. 이렇게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수 분류사 언어에 속하지만 두

1) Allan(1977) 및 Craig(1994)는 우형식(2001:21-27)에서 재인용.

언어에서 분류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다.

한국어의 classifier는 명사의 하위부류인 의존명사에 속하고 분류사(分類詞), 수량 단위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어 문법에서는 한국어의 품사 체계와 달리 ‘양사(量詞)’라는 독립적인 품사를 따로 설정하고 있으며 양사의 하위부류 유형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黃伯榮·廖旭東(2009)에 따르면 중국어 문법에는 동작을 수식하고 동작의 발생 횟수와 발생 시간의 총량을 나타내는 동량사(動量詞)라는 단어 부류가 양사의 하위부류의 하나로 존재한다.

한국어 문법에도 ‘번, 차례, 바탕, 바퀴’ 등과 같이 동작이나 사건을 수식하고²⁾ 동작의 발생 횟수나 동작이 차지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부류가 존재하지만 이를 일컫는 전용 명칭은 따로 설정한 바 없이 명사를 수식하는 분류사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일컬어 왔다. 그래서 범박하게 분류사나 단위성 의존명사로 일컫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이렇게 동작이나 사건을 수식하고 동작의 발생 횟수나 동작이 차지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부류들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이 단어 부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분류사’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는 이미 박진호(2011), 채옥자(2012) 등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이들 논의들에서 ‘분류사’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단위사’라는 용어가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채옥자(2012)에서는 단위사의 한 하위 범주로 ‘동작단위사’라는 용어를 제안한 바 있으며 본 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동작단위사’라는 용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의에 주안점을 둔다. 아울러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동작단위사와 중국어 동량사(動量詞)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다른 연구에서 ‘동작 동사와 결합한다’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분류사는 동작 또는 사건을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밥을 세 그릇 먹는다.’와 ‘밥을 세 끼 먹는다.’에서 ‘그릇’은 ‘밥의 양’을 한정하고 ‘끼’는 밥을 먹는 동작 혹은 사건을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한정 관계로 보는 것은 명사적 부류분류사와의 구별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 그동안 흔히 사용되어 온 소위 ‘분류사’라는 명칭에 대해 다시 검토하면서 이른바 한국어 분류사의 특성을 중국어 동량사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이를 ‘단위사’로 명명하고, 이를 다시 동작을 수식하고 동작의 발생 횟수나 동작이 차지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류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작단위사’라는 명칭으로 일컫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를 대조하여 동작단위사와 동량사의 의미 특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4장은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 각각의 하위부류에 대해 고찰하고 본고에서 동작단위사와 동량사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계점을 서술하며 추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II. 명칭의 설정

1. 개념 및 명칭

한국어학계에서 ‘classifier’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classifier’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통일된 공인 명칭이 없다.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 온 명칭은 ‘불완전명사’³⁾, ‘단위성 의존명사’, ‘수량단위 의존명사’⁴⁾ 등이다. 최근 들어서는 ‘분류사’로 명명하는 경향

3) ‘불완전 명사’로 명명한 견해는 주로 최현배(1955)의 셈날덩이 안운근 이름씨(數單位 不完全名詞), 정인승(1956)의 매인 이름씨(不完全名詞), 이우호·이인섭(1965), 이길록(1966), 양주동·유목상(1968)의 수량 불완전 명사(數量不完全名詞), 허웅(1968)의 불완전명사(不完全名詞) 등이다.

4) 남기심·고영근(1987), 김민수·임홍빈·이승녕(1991), 서정수(1994), 고영근·구본관(2008),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로 일컫는다.

이 확장되어 연구 논문과 학위논문들 중에서 ‘분류사’로 명명한 논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⁵⁾ ‘분류사(classifier)’의 개념을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잘 찾아지지 않으나(이선웅 2012:151) 대표적인 논의로는 유동준(1983), 채완(1990), 이남순(1995), 곽추문(1996), 우형식(2001) 등을 들 수 있다.

‘분류사’라는 명칭은 명칭 자체의 의미로서 부류를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 분류사’의 주요 기능은 부류화가 아니라 수량 구성에서의 단위 제공의 기능이다. 이선웅(2012:154)에서도 한국어에 국한할 때 분류사는 부류화보다는 수량화의 기능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박진호(2011)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명사의 부류화 기능은 수 분류사의 주요 기능이 아닌 부차적인 기능이므로 ‘분류사’로 명명하는 것은 한국어나 중국어의 수량 구성의 단위를 나타내는 부류들의 주요 기능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수 분류사’라는 명칭보다 ‘수 단위사’라는 명칭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박진호(2011)에서는 수 분류사가 가지는 명사의 부류화 기능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핵 명사의 지시대상의 부류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소위 포괄적 분류사(generic classifier)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개’, 중국어의 ‘個’, 일본어의 ‘つ(tsu)’ 등이다. 둘째, ‘키 큰 사람 세 사람’과 같이 핵 명사를 그대로 반복해서 수 분류사로 사용하는 일이 흔히 있다. 이를 반복자(repeater)라고도 하는데, 반복자 역시 분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수 분류사는 수량 구성에만 나타난다. 수 분류사의 기능이 핵 명사의 지시대상의 부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유독 수량 구

5) 강창석(2009:29)에서는 ‘개’나 ‘잔’ 등을 ‘분류사’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분류사’라는 용어는 ‘classifier’라는 구미 이론의 용어를 직역한 것으로 보이나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분류사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에만 나타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박진호(2011)에서는 수량 분류사를 ‘단위사(unitizer)’라고 부른다고 한다.⁶⁾ 이선웅(2012), 채옥자(2012), 최정도(2017), 김혜지(2020)에서도 명사의 부류화 기능에 초점을 둔 ‘분류사’라는 용어가 모든 단위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박진호(2011)의 관점을 수용하여 분류사 대신 ‘단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한다. 즉, 수 분류사는 지시대상의 특징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은 분류의 기능이 아니라 수량화 기능이므로 ‘분류사’라는 용어보다는 ‘단위사’라는 용어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classifier의 한계를 벗어나 수량(數量)의 뜻으로 ‘量詞’라는 용어와 품사를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한국어 분류사는 수량화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고, 또한 분류사의 수량화 기능이 분류 기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분류사가 아닌 ‘단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⁷⁾

2. 동작단위사

한국어에는 ‘번’, ‘차례’, ‘바퀴’, ‘바탕’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번, 차례, 바퀴, 바탕’ 등의 어휘에 대해 어느 정도씩은 언급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류에 초점을 맞

6) 박진호(2011:26)에 제시된 ‘단위사(unitizer)’의 하위 부류는 다음과 같다.

수 단위사(count unitizer)

개체 단위사(entity unitizer) 예: 개, 명, 마리, 그루, 송이, 대, 장, 자루

집합 단위사(group unitizer) 예: 켈레, 다스, 툇, 손

사건 단위사(event unitizer) 예: 번, 차례, 회, 바퀴, 순배, 판

양 단위사(mass unitizer)

용기 단위사(container unitizer) 예: 잔, 병, 컵, 그릇, 숟가락

도량형 단위사(measuring unitizer) 예: 미터, 킬로그램, 리터

7) 물론 단위사는 품사의 하나는 아니다. 단위사들의 세부 항목들을 볼 때 의존명사에 속하여 품사상으로는 명사에 속하게 된다.

춘 연구는 드물어 그 범주가 선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 어휘류를 사물을 지시하는 단위사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채완(1990)에서는 국어 분류사 체계에서 행위(action) 또는 사건(event) 명사와 결합될 수 있는 분류사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행위, 사건 명사와 연결되는 분류사로 ‘가지, 거리, 番, 회, 回’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 일반 명사와 결합되는 부류분류사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부류분류사의 한 유형으로만 보았으며 사건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없이 단순한 명사로만 보았다는 한계가 발견된다.⁸⁾

성광수(1975)에서는 불완전명사(不完全名詞)를 量詞로 부르고 이에 대해 다시 度量衡(도량형), 貨幣(화폐), 動量(동량), 人·動·物과 같이 네 부류로 나누었다. 이때 ‘회(回), 주(周), 차(次), 번(番)’을 動量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動量詞에 대한 의미적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

곽추문(1996)에서는 중국어의 양사(量詞)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한국어 분류사에 대해 크게 부류분류사, 도량분류사, 동작분류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중국어 동량사의 한국어 대응 부류를 ‘동작분류사’로 명명하고 동작·행위의 횟수 단위를 표시하는 분류사라고 하였다. 한국어의 동작분류사는 중세 국어 단계에서도 이미 존재하였고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명사류뿐만 아니라 동작의 수량과 단위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사람, 사물 혹은 동작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도 동작분류사에 대해 동작·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는 점은 지적하였지만 동작·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의 개념을 지적하지 않은 것과 기존의 분류사라는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형식(2001)에서는 척도(scale)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명사가 지시하는

8) 채완(1990)에서는 분류사를 ‘g, kg’와 같이 대체로 명사의 도량형을 표시하는 도량분류사와 ‘명, 마리’와 같이 명사의 의미 자질을 표시하는 부류분류사로 나누었다. 사건, 행위 명사와 연결되는 분류사에는 ‘가지, 거리, 件, 曲, 마디, 방, 番, 판, 허리, 회, 回’가 있다.

대상의 수량적 척도는 분류사로 표시된다고 하면서 이를 척도 범주에 따라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비율 척도, 간격 척도로 나누고 동작분류사는 명목 척도의 [횟수]의 분류사로 표시하고 있다.⁹⁾ 특히 [횟수]의 분류사는 동작이 반복되는 수를 단위화한다는 특징이 있음이 주목된다. 즉, 명사의 수를 단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event)를 단위화한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우형식(2001)에서는 ‘동작분류사’에 대해 [횟수]의 분류사로만 표시하고 동작분류사의 본질적 특성인 동작의 발생 횟수를 단위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박진호(2011)에서는 ‘번, 차례, 회, 바퀴’ 등과 같은 동작을 나타내는 단위사를 사건 단위사(event unitizer)로 명명했다. 그러나 ‘사건 단위사’라는 명칭은 동작을 수식한다는 점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큰 범주로 보면 동작이 사건을 이루지만 사건보다는 세부적인 의미를 가진 동작을 강조하는 명칭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채옥자(2012)에서는 박진호(2011)에서 제시한 ‘단위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확장시키고 있다. 수 분류사의 주요 기능은 명사를 세는 단위를 표현하는 것이고 명사의 부류화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분류사’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단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동작단위사’로 명명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명칭을 본고에서도 채택하고 이 명칭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하기에 채옥자(2012)는 본고에 중요한 참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 ‘모금’과 같은 단위사의 판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¹⁰⁾

9) 척도(scale)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물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수량적 변수로 바꾸어 놓은 표지로, 주어진 대상에 대해 하나의 값을 할당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의 수준을 뜻한다. 명목 척도는 명사 지시물의 양적 범주와 관련하여 다시 [수효]와 [횟수]로 구분되는데 [수효]는 사물 자체를 대상으로 사물의 개수에 대한 단위가 되고 [횟수]는 동작을 대상으로 동작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우형식 2001:140-145).

10) 채옥자(2012)에서 ‘모금’, ‘입’은 부류분류사일 뿐 동작단위사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본고는 다른 관점을 가진다. 즉 ‘모금’, ‘입’은 부류분류사로도 볼 수 있고

3. 중국어의 양사(量詞)와 동량사(動量詞)

중국어학계에서 양사(量詞)는 현대 중국어 품사에서 늦게 확립된 품사이며 20세기 중반에 와서 독립된 품사로 지정되었다. 黎錦熙(1924)에서 제일 먼저 양사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의미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논의에서는 양사는 여전히 명사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王力(1943)에서는 黎錦熙(1924)와 비슷한 관점을 주장하였고 양사를 ‘단위명사(單位名詞)’라고 하면서 명사의 하위분류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 문법에서의 의존명사 부류에 대한 취급과 유사하다.

呂叔湘(1942)에서는 명사와 구분해서 ‘단위사(單位詞)’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高名凱(1948)에서는 양사를 ‘수위사(數位詞)’로 부르고 명사의 기능을 가진 단어가 숫자와 결합되면 이 단어와 숫자 사이에 ‘허사(虛詞)’를 붙여야 이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의 자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양사’의 개념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양사가 아직 독립 품사로 설정되지는 않았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양사’도 처음에는 명사 혹은 의존명사와 같은 지위를 가졌다.

丁聲樹(1952, 1953)은 ‘양사(量詞)’에 독립된 품사의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논의이다. 20세기 50년대 말에 들어서 비로소 ‘양사(量詞)’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이는 사물이나 동작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何傑(2008:6)에서는 양사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실체를 가진 사물을 계산하는 물량사(物量詞)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동작을 계산하는 동량사(動量詞)이다. 이를 통해 중국어학계에서는 처음부터 동량사라는 양사의 하위부류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어학계에서는 양사의 분류에 대한 관점이 다소 다르지만 동

량을 인정한다는 점은 일치한다.¹¹⁾ 동량의 정의에 대해 黃伯榮·廖旭東(2009)에서 동량은 동작의 발생 횟수와 발생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劉月華(2001)에서는 동작이나 변화의 횟수 단위를 나타내는 양사를 동량사라고 정의하였다. 丁聲樹(2002)에서는 ‘動量’과 ‘시간’을 합쳐서 하나의 整體로 간주하고 동량사는 양적으로 동작·행위를 수식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수사와 결합되어 수량 표현을 이룰 수 있는 동작 혹은 사건을 나타내는 단위사가 존재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일찍이 이러한 단위사를 양사(量詞)의 하위분류인 ‘동량사(動量詞)’로 명명해 왔다. 본고에서는 바로 중국어의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한국어의 이와 같은 단위사에 대해 채옥자(2012)에서 제시된 관점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즉 동작이나 사건을 세는 단위를 ‘동작단위사’로 부르고 이를 단위사의 하위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중국어 문법에서는 양사가 품사의 하나인 데 반해 한국어 문법에서는 단위사가 품사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Ⅲ. 동작단위사와 동량사의 의미적 특성 대조

1. 의미적 특성의 공통점

중국어학계에서는 동량사(動量詞)가 이미 공인된 개념이므로 먼저 중국어 동량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어에서는 동량사가

11) 何傑(2008)의 물량사(物量詞)는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주로 명량사(名量詞)라는 용어로 통일되기에 이른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動量詞)에 대한 대조연구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명량사(名量詞)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논의할 것이다.

공인된 개념으로서 그 정의로부터 동량사의 의미적 특징을 엿볼 수도 있다. 동량사는 동작의 횟수와 동작 발생 시간의 총량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적 특징은 동작의 횟수와 동작의 발생 시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呂叔湘(1982)에서는 동작의 횟수는 ‘양(量)’의 개념과 관계되고 ‘시(時)’의 개념과도 관계된다고 하였다. 石毓智·李訥(2001)에서는 동량사를 ‘횟수시간사(回數時間詞)’라고도 하고 동작의 발생 및 같은 길이의 동작 과정의 반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劉衛生(2003)에서는 동량사가 수사와 결합된 수량 구성은 동작의 양(量)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사건과 관련되어 [+사건]의 특성을 포함하고 시간 양사가 수사와 결합된 수량 구성은 명확한 [+시간]의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학계에서는 ‘동량사’에 대한 인식이 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양의 개념, 다른 하나는 시간의 개념이다. 즉 동작·행위의 발생 혹은 반복 횟수와 동작·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중국어학계에서 동량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에 비해 한국어학계에서는 동작단위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흔치 않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채옥자(2012)에서는 중국어의 動量詞(동량사)에 대한 해석과 비교하면서 동작단위사의 사전적 의미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의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동작단위사는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동작의 발생 횟수뿐만 아니라 동작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과정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아마도 현재까지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연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사전의 뜻을 통해서도 동작단위사와 동량사가 같은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전형적인 한국어 동작단위사 ‘번’, ‘차례’, ‘회’, ‘바탕’을 살펴보자. 『우리말샘』에서 제시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가. 번 「006」: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나. 차례 「00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는 단위.
다. 회 「009」: 횟수를 나타내는 말.
라. 바탕 「006」: 어떤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

한편, 중국어의 전형적 동량사의 의미는 중국어 사전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2) 가. 次: 用於可以重複的動作.
반복 가능한 동작에 사용한다.(『現代漢語八百詞』 呂叔湘, 2003)
나. 回: 指事情、動作的次數.
사건이나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現代漢語詞典』 第7版)
다. 下: 用於動作的次數.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現代漢語八百詞』 呂叔湘, 2003)
라. 場1: 事情經過一次為一場.¹²⁾
사건을 한 차례 끝내는 것을 나타낸다.(『現代漢語八百詞』 呂叔湘, 2003)

이상의 선행 연구와 사전의 해석을 통해서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냄은 물론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12) 중국어의 ‘場’은 多音字(다음자)로서 의미별로 발음도 다르게 나타난다. ‘場1cháng’은 동량사(動量詞)로서 사건을 한 차례 끝내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한다. 名量詞(명량사)로서의 ‘場2chǎng’은 주로 경기 활동에 쓰여 경기의 횟수를 나타낸다.

2. 의미적 특성의 차이점

우선 한국어의 전형적인 동작단위사 ‘번’과 그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도록 한다.

(3) 가. 한 번 입어 본다.¹³⁾

가. 試穿一下.

나. 두 번 읽었다.

나. 讀了兩遍.

다. 두 번 다녀왔다.

다. 去過兩趟.

라. 두 번 말했다.

라. 說了兩回.

마. 세 번 참여했다.

마. 參加過三次.

바. 한 번 조사했다.

바. 調查一番.

중국어는 양사가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양사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動量詞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動量詞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도 다르다. 張斌(2009:824)에서는 동작의 양은 사건 및 시간과 관계되므로 동작의 횟수와 시간뿐만 아니라 동작의 강도, 범위, 활동의 폭, 반복의 횟수 및 지속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위 (3)과 같이 한국어의 동작단위사 ‘번’은 문맥에 따라 여섯 가지의 중국어 동량사에 대응한다. (3가)의 ‘下’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지만 주로 동작의 폭(범위)이 짧고 동작의 시간 길이도 짧은 동작에 적용한다. (3나)의 ‘遍’은 동작의

13) 여기서 ‘시도’ 구문에 나타나는 ‘한번’은 합성어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번’을 따로 동작단위사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 대응 표현을 고려할 때는 동작단위사와 매우 유사한 쓰임을 보이므로 함께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횃수를 나타내며 시작과 끝이 있는 동작에 쓰인다. (3다')의 '趟'은 왕복을 해야 한 번으로 간주되는 동작에 쓰인다. (3라')의 '回'는 단순히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횃수를 나타내고 (3마')의 '次'는 주로 반복 가능한 동작에 쓰여 동작의 반복성을 강조한다. (3바')의 '番'은 동작에 힘이 많이 들고 동작의 과정이 긴 시간을 차지하는 동작에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어의 동량사는 양의 개념에서 동작의 크기, 동작의 범위, 동작 시간의 길이, 동작 목적성의 강약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동작단위사는 동작의 횃수만 나타낼 뿐 동작의 크기, 동작의 범위, 동작의 시간 등을 나타내지는 않고 도량형 분류사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해서 그러한 의미들을 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특별한 예가 있다. 한국어의 동작단위사 중에는 특정 동작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동작단위사가 존재한다. 다음 (4), (5)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4) 가. 가지 「008」: 제기차기에서, 제기를 차기 시작해서 땅에 떨어뜨리기까지의 동안을 세는 단위.

나. 물 「008」: 옷을 한 번 빨래할 동안.

(5) 가. 한 가지에 몇 번이나 찼니?

가. 一次踢幾個?/?一回踢幾個?

나. 한 물 빨다.

나. 洗一{次/回}衣服.

위 (4)에서 '가지'는 '제기차기에서 제기를 차기 시작해서 땅에 떨어뜨리기까지의 동안을 세는 단위'이고, '물'은 '옷을 한 번 빨래할 동안을 세는 단위'라는 사전의 뜻풀이가 보여 주듯이 일반적인 동작이나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동작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동작단위사라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 주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런 특정 의미를 가진 동작단위사는 중국어의 동량사에서는 그 대응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5)에서 보듯 이러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데

에도 모두 가장 기본적인 동량사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동작단위사와 중국어 동량사의 뚜렷한 차이 중 하나로 손꼽을 만한 것이다.

IV. 동작단위사와 동량사의 하위분류

1.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

한국어학계에서는 주로 분류사의 분류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일반적이고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곽추문(1996)에서 최초로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에 관심을 두었는데, 우리의 ‘동작단위사’를 ‘동작분류사’라 명명하면서 동작이나 행위의 횟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단일성 동작분류사와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에 일어난 동작이나 행위의 수량을 세는 집체성 동작분류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6) 가. 단일성: 번, 판, 대, 입, 모금, 바퀴, 방(放), 화...

나. 집체성: 바탕, 차례

채옥자(2012)는 동작단위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결과로서, 곽추문(1996)에서 동작분류사의 하위분류를 명사의 부류분류사와 같은 맥락으로 ‘단일성’과 ‘집체성’의 이분법으로 분류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어의 동작단위사는 동작단위사의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여 [+순간성]의 동작동사로 나타나는 동작의 횟수를 세는 동작단위사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단위사의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였다. 채옥자(2012:321)에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가. [+순간성]의 동작단위사: 걸음, 대, 발09(發), 발/발짝, 방, 점
10, 합01(合), 화01 등

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동작단위사: 게임, 그루, 교
02(校), 끼01, 고펡이, 돌림01, 무08(無), 바퀴, 바탕02,
박10(泊), 배01, 번, 벌05, 범04(犯), 사리, 선15(選), 수
04(手), 승12(勝), 잠01, 주11(周), 켜, 탕01, 판, 패01
(敗), 차03(次), 차례, 축, 회08(回) 등

2. 동량사의 하위분류

중국어학계에서는 양사와 동량사의 존재가 이미 널리 인정되어 동량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呂叔湘(1982)에서는 동량사를 전용단위, 도구를 나타내는 동량사 및 동사를 사용하는 단위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呂叔湘(1982)에서는 동량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유형을 설명했지만 각 유형의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다. 呂叔湘(1982)에서 제시한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8) 가. 전용단위: 問一聲(한 번 묻다), 走一趟(한 번 가다), 進一次城(시내에 한 번 가다), 哭一陣(한바탕¹⁴ 울다), 罵一頓(한바탕 혼나다), 拍一下桌子(책상을 한 번 치다)

나. 도구를 나타내는 동량사: 看一眼(한 번 보다), 踢一脚(한 번 차다), 喝一口(한 모금/입 마시다)

다. 동사를 사용하는 단위: 笑一笑(한번 웃어 보다), 說一說(한 번 말해 보다), 走一走(한번 걸어 보다)¹⁵⁾

14) ‘바탕’이라는 동작단위사도 존재하지만 ‘한바탕’이 이미 합성어로 존재하므로 규범을 준수하여 띄어 쓰지 않았다.

15) 중국어에서 동사를 동량사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동사의 중첩형과 비슷한 용법을 나타내므로 가벼운 어감을 띠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동작을 ‘하거나 시도해 보다’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부류를 차용 동량사라 한다.

한편, 劉月華(2001)에서는 동량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 가지는 전용(專用) 동량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차용(借用) 동량사이다. 전자는 동작 또는 변화의 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떤 어휘적 의미를 포함한다. 후자는 동작의 도구와 인체 부위나 기관이 차용되는 동량사이다. 劉月華(2001)에서 제시한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가. 전용 동량사: 次, 下, 回, 頓, 陣, 場, 趟, 遍, 番

나. 차용 동량사: 砍了一斧子(도끼로 한 대 갈겼다), 切了一刀(칼로 한 번 베었다), 放了一槍(한 방 쏘았다), 踢了一腳(발로 한 번 찼다), 咬了一口(한 입 물었다), 看了一眼(한 번 봤다), 打了一拳(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黃伯榮·廖旭東(2009)에서는 동량사를 크게 ‘전용 동량사’와 ‘차용 동량사’로 분류하였는데, 전용 동량사는 다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사와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동량사로 구분되고 차용 동량사는 다시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借自名詞]와 동사에서 차용된 동량사[借自動詞]로 구분된다. 黃伯榮·廖旭東(2009)에서 제시된 동량사의 하위분류는 다음과 같다.

(10) 가. 전용 동량사

ㄱ.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사: 次, 回, 趟, 遭, 下, 遍, 番, 場

ㄴ. 동작의 시간을 나타내는 동량사: 住了三年(3년 동안 살았다), 看了三天(3일 동안 봤다), 來了三分鐘(3분 동안 왔다)

나. 차용 동량사

ㄱ.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踢一腳(발로 한 번 차다), 砍三刀(칼로 세 번 베다), 打幾槍(몇 방 쏘다), 畫一筆(펜으로 한 번 긋다)

- ㄴ. 동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看一看(한 번 보다), 想一想(한 번 생각하다)

何傑(2008)에서도 동량사에 대해 다시 세분하여 크게 전용 동량사와 차용 동량사로 구분하고 차용 동량사를 다시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동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이합사(離合詞)의 뒤에 오는 형태소에서 차용된 동량사, 중첩형을 사용한 동량사와 같이 네 가지로 세분하였다. 또 전용 동량사는 다시 동작·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양사와 동작·행위의 횟수를 나타내는 양사로 구분하였고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는 다시 도구 또는 기계에서 차용된 동량사, 인체 기관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시간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의 네 가지로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何傑(2008)에서 제시한 분류 방식은 지금까지의 분류 중 가장 상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1) 가. 전용 동량사: 次, 回, 趟, 遭, 番, 陣, 場1, 頓, 遍, 下
 - ㄱ. 동작·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양사: 氣, 通, 下, 場2, 陣
 - ㄴ. 동작·행위의 횟수를 나타내는 양사: 場, 頓, 回, 次, 遭, 遍, 下, 番, 把

나. 차용 동량사

- ㄱ.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 a. 도구 또는 기계에서 차용된 동량사: 放一槍(한 방 쏘다), 切一刀(칼로 한 번 베다), 抽一鞭子(채찍으로 한 대 때리다)
 - b. 인체 기관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咬一口(한 입 물다), 瞪一眼(눈을 한 번 부라리다)
 - c.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叫一聲(한 번 소리 지르다), 跑一圈(한 바퀴 달리다), 邁一步(한 걸음 내딛다)

- d. 시간 명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活了一世紀(한 세기 동안 살았다), 住了一年(일 년 동안 살았다)
- ㄴ. 동사에서 차용된 동량사: 嚇了一跳(깜짝 놀라다), 受了一驚(깜짝 놀라다)
- ㄷ. 이합사의 뒤에 오는 형태소에서 차용된 동량사: 睡覺 — 睡一覺(한 잠 자다), 見面 — 見一面(한 번 만나다), 摔跤 — 摔一跤(한 번 넘어지다)
- ㄹ. 중첩형을 사용한 동량사: 看一看(한 번 보다), 試一試(한 번 시험하다), 唱一唱(한 번 노래하다)

한국어학계에서는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에 대해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어학계에서의 동량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동량사의 하위분류는 더 상세하고 유형도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채옥자(2012)에서 제시된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 유형은 何傑(2008)에서 제시된 전용 동량사의 하위분류 유형과 비슷한 점이 있다.

중국어 동량사의 하위분류에 대해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소 다르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문맥에서 동량사로 간주하거나 동작이나 행위가 수반되는 도구를 동량사로 간주하는 차용의 개념을 모두 인정한다. 즉 ‘口(입)’, ‘腳(발)’, ‘眼(눈)’과 같은 명사와 ‘看(보다)’, ‘嚐(맛보다)’, ‘試(시도하다)’와 같은 동사는 원래의 품사에서 벗어나 문맥에 따라 양사로 사용된다. 차용의 개념은 중국어학계에서 이미 공인된 것이며 명사나 동사를 차용하여 동작이나 행위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동량사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명사에서 차용된 경우는 가령 ‘看一眼(한 번 보다)’의 ‘眼’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미 명사인 ‘眼(눈)’의 의미와 떨어진 것이다. ‘打兩拳(주먹으로 두 번 치다)’의 경우에도 ‘拳(주먹)’은 동작이나 행위가 발생할 때 수반되는 도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실제 주먹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어 모호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동사에서 차용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의 동사는 양사의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看一看(한 번 보다)’의 경우에 두 번째의

‘看’은 동사가 아니라 첫 번째의 ‘看’의 ‘양’을 나타내는 양사이다. 이때의 ‘양’은 동작 혹은 사건의 횟수가 아니라 동작의 범위, 동작의 강약, 동작의 크기, 동작 시간의 길이 등을 나타낸다. 차용의 개념은 중국어 양사가 지닌 하나의 특성이며 명사를 수식하는 명량사(名量詞)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一杯咖啡(커피 한 잔)’의 경우 ‘杯(잔)’과 같은 용기 단위를 차용하여 커피의 양을 나타내는 양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次, 回, 頓, 場’과 같은 ‘전용 동량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행위의 발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도 모두 양사에 포함된다. 예컨대 ‘住了一年(일 년 동안 살았다)’, ‘看了三天(삼 일 동안 봤다)’의 경우에 ‘年(년)’과 ‘天(일)’은 중국어에서는 특정 문맥에서 동량사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년’과 ‘일’을 동작단위사로 볼 수 없고 사용할 때도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동안’을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국어의 동작단위사는 동작이 시작되어 그 동작이 끝나는 ‘동안’의 수량을 의미하지만 동작이 지속되는 실체로서의 시간은 동작단위사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의 동작단위사는 ‘가지’, ‘물’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횟수를 계량할 뿐이고 동작의 시간, 동작의 범위, 동작의 수단, 동작의 크기 등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도량형 단위사로 나타내야 하므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도량형 단위사를 동작단위사로 볼 수는 없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중국어 양사의 개념을 참고하여 한국어 분류사를 ‘단위사’로 명명하고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세는 단위를 ‘동작단위사’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며 근거를 보완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動量詞)의 의미적 특성을 대조하여 동작단위사와 동량사의 의미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동작단위사와 중국어의 동량사는 모두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횟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동량사는 ‘양’의 개념에서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횟수와 지속된 시간뿐만 아니라 동작의 강도, 범위, 활동의 폭, 반복의 횟수 및 지속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반면에 한국어의 동작단위사는 이런 의미적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가지, 물’과 같이 특정 동작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작단위사가 존재하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특정 의미를 가진 동량사가 없다.

동작단위사와 동량사의 하위분류를 살펴보면 한국어학계에서는 주로 분류사의 분류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 동작단위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중국어학계에서는 동량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자에 따라 분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문맥에서 동량사로 간주되거나 동작이나 행위가 수반되는 도구가 동량사로 간주되는 차용(借用)의 개념을 모두 인정한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차용’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동작단위사는 동작이나 사건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일 뿐이다. 동작의 시간, 동작의 범위, 동작의 수단, 동작의 크기 등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도량형 단위사로 나타내야 하므로 이들은 동작단위사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밝혀진 한국어 동작단위사와 중국어 동량사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 이 연구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수량사 전반에 대한 사용상의 특징과 제약을 규명하는 연구에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의 명량사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대응 형식에 대한 연구도 후속 연구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강창석(2009), 「국어의 수량(數量) 표현 문법1-개념과 용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人文學誌』 39, 忠北大學校人文研究所, 25-45.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곽추문(1996), 「韓國語 分類詞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 김민수·임홍빈·이승녕(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혜지(2020), 「단위사 결합형 명사에 대한 고찰」, 『국어학』 94, 국어학회, 177-203.
- 남기심·고영근(1987),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진호(2011), 「소유 분류사와 한국어의 속격 표시」, 『제4회 언어유행론연구회 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5-29.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성광수(1975), 「소위 불완전명사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어문학』 33, 한국어문학회, 189-203.
- 양주동·유목상(1968), 『새 문법』, 대동문화사.
-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 유동준(1983), 「국어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53-72.
- 이길록(1966), 『고등학교 새 국어문법』, 삼도사.
- 이남순(1995), 「수량사구성의 몇 문제」,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43-67.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응호·이인섭(1965), 『고등 국어문법』, 향문사.
-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채 완(1990), 「國語 分類詞의 機能과 意味」,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67-180.
- 채옥자(2012), 「한국어의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단위사에 대하여」, 『국어학』 64, 국어학회, 301-325.
- 최정도(2017), 「한국어 수량 표현의 계량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웅(1968),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 Allan, K.(1977), Classifiers, *Language* 53-2, 285-311.
- Craig, C. A.(1994), “Classifiers Language,”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ume 2, (ed. by Asher, R. E.), Oxford: Pergamon Press, 565-569.
- 丁聲樹(2002),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 高名凱(2011), 『漢語語法論』, 北京: 商務印書館.
- 何傑(2008), 『現代漢語量詞研究』,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 黃伯榮·廖旭東(2009), 『現代漢語(增訂四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黎錦熙(1992), 『新著國語文法』, 北京: 商務印書館.
- 劉街生(2003), 「現代漢語動量詞的語義特征分析」, 『語言研究』 2003年第3卷 第2期, 51-55.
- 劉月華(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 呂叔湘(1982),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 呂叔湘(2003),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 石毓智·李訥(2001), 『漢語語法化的歷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王力(1943), 『中國現代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 張斌(2009), 『現代漢語描寫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6), 『現代漢語詞典 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Verbal Unitizers
and Chinese Momentum Words
—On Nomenclature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Xu, Jiasi

Kyung Hee University

Kim, Jungnam

Kyung Hee University

Korean is classified as a numerical classifier languag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erms such as 'myeong', 'gae', 'beon', and 'hoe', which denote the number of actions and events, fall under the classifier category. However, these terms primarily function not just for classification but as units of quantity in quantification constructs, making the term 'unitizer' more appropriate. Such unitizers, representing the number of actions and events, can be termed verbal unitizers, a more fitting designation. Conversely, in Chinese, momentum words function as independent parts of speech and are recognized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as a subset of quantifiers. Both Korean verbal unitizers and Chinese momentum words indicate the number, frequency, and duration of actions and events. However, Korean verbal unitizers are limited to denoting the number and duration, whereas Chinese momentum words also convey the scope, amplitude, duration, intensity, and other aspects of actions. There are specific verbal unitizers in Korean, such as 'gaji' and 'mul', that designate particular events, a feature not mirrored by specialized momentum words in Chinese.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verbal unitizers within the Korean linguistic community, with binary classification being the predominant method. In contrast, the classification of momentum words in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is more vibrant, with a variety of classification approaches, and the concept of borrowing is extensively accepted. As for the Korean language, adapting the borrowing concept is challenging, and verbal unitizers solely denote the number of actions and events. The aspects such as the event's occurrence, timing, scope, method, and scale are better represented by nouns or units of measure that denote time, which should not be confused with verbal unitizers.

Keywords: unitizer, quantifier, verbal unitizer, momentum words, semantic characteristics, comparative study

■ 논문투고일 : 2024. 09. 10

■ 심사완료일 : 2024. 09. 30

■ 게재확정일 : 2024. 10. 11

